

일 지역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성 지식, 태도, 경험 및 교육 요구 비교

이점숙·이가연

*동아대학교 의료원 ·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Knowledge, Attitudes, Experiences in Sex and Needs for Sex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um-suk Lee* · Ga Eon, Lee**

*Medical Center, Dong-A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focused on comparing the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s in sex and the needs for sex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3 female students who attended 4 universities in Busa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November 2002 to December, and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variance, t-test and Chi-squ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sex knowledge of the nursing students was 13.29 and the non-nursing students's was 11.11. There was a difference($p=0.000$) between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in sex knowledge.
2. The mean score of sex attitude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was 25.64, 26.65 respectively.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3. 61.8% of the nursing students and 62.3% of the non-nursing students had experienced a relation with the opposite sex. Kissing experience was 59.9%, 61.8% and masturbation was 9.5%, 9.2% respectively. Sexual intercourse was 5.3%, 11.9% and contraception was 1.9%, 8.2% respectively. Among these experiences, sexual intercourse and contraception experience rate were different($p=0.017$, $p=0.002$ respectively) between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4. Of 19 sexual education contents, only 'the dignity of life' showed a difference. That is, more nursing students(92.9%) wanted to know about 'the dignity of life' than non-nursing students(85.7%). Among the respondent's needs on the sexual education contents, 'Contraception' was rated first and followed by 'Sex psychology of men and women', 'Pregnancy', 'Prevention of sexual crime'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Most of the respondents(95.8%) wanted sex education introduced in the first year of university, and presented as a special class. Specifically, 50.0% of the students wanted the education to be more realistic and systemic.

With the above results, when university faculties are sexual educating to university students, they have to aware of the difference of target students. And they need to stress more realistic and specific aspect of sexual education learning rather than theoretical teaching.

Key words: sexual knowledge, attitudes, sexual experience, sexual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의 성개방에 대한 진보적 조류가 확산되어 전통적인 성태도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생활 양식이 변화되면서 전통적 성규범에서 벗어나 이성교제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무분별한 성 자극과 퇴폐적인 성지식에 노출되어 성폭력의 문제, 성비행 문제의 연소화 경향, 이성교제의 문란, 혼전 성문제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박영주 등, 1998; 김현경 등, 1999; 신혜숙, 1998; 문인옥,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의 조사에 의하면 일 중 소도시 여성 임신중절률의 33%가 미혼여성에 의한 것이며, 또한 박영주 등(1998)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 13세에서 19세까지 10대 미혼 여성의 임신율은 1000명 중 7.2명, 인공 유산율은 4.3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혼전의 임신과 인공유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우리 나라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은 일본의 3배를 넘으며, 성범죄의 발생은 세계 3위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조선일보, 2000).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초, 중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및 사회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의 성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이 시기의 성에 대한 의식, 태도와 성 행동에 대한 결과는 평생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올바른 성 정체감이 형성되도록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 시기는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자취, 하숙을 하게 되는 기회가 많으며, 최근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근접한 지역 내에서 대학생활을 하더라도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 독립거주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성 행동에 있어서도 더욱 자유로워져서 혼

전임신, 인공유산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특히 대학생으로서 혼전임신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대학생 중에서도 특히 여대생은 미래의 어머니가 될 자로서 이들에 대한 성 관련 건강 문제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시절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다양한 지식과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에 관한 연구 39편을 분석한 결과(김현경 등, 1999)에서 그 대상의 46.2%는 고등학생이었으며 20.5%가 대학생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공학과를 뚜렷이 구분하여 연구한 경우보다는 남, 여 학생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전공 과목을 통하여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타 전공학과 학생들보다는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에 대한 태도나 경험, 교육요구내용 또한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의 여학생과 간호학 외, 타 전공을 하는 여학생의 성지식, 태도, 경험 및 교육요구의 실제 차이여부를 확인하고 비교하여 전공 학과에 따른 여자 대학생들의 성교육 계획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내 4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중, 간호학과 2학년 118명, 3학년 148명과 간호학 외, 타 전공학과 3학년 137명을 편의 추출한, 총 4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성지식 : 이인숙(1994), 문인옥(2000)이 사용한 도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생식생리 5문항, 피임 2문항, 임신 5문항, 성병 5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을 한 경우에는 1점, 오답을 한 경우와 '모른다'라고 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7

점의 범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0.5815이었다.

2) 성태도 : 이인숙(1994), 박경화(2001)의 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의 총 10문항으로 되어있다. 개방적인 태도의 문항에서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점, '매우 반대'인 경우는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보수적인 1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 는 0.7680이었다.

3) 성경험 : 이인숙(1994), 한경순과 함미영(2000)의 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성교제, 자위행위, 성교, 피임, 임신, 유산에 관한 경험의 유무를 나타내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성교육 요구 : 문인옥(1997), 이인숙(1994)의 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가 요구하는 성교육 항목을 나열한 19개의 문항과 1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 여부, 실시 형태, 실시 시기, 실시 방식, 담당자 및 기타 요구 사항에 관한 6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02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각 학교 해당학과의 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조사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은 다음, 수업시간을 전후로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한 뒤, 조사를 수락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421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완전한 응답을 한 18부를 제외한 간호학과 2학년 118부, 3학년 148부, 타 전공학과 3학년 137부, 총 403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 Ver 10.1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경험, 성교육 요구는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성지식과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간의 성지식, 태도, 경험의 차이는 t-test와 Chi-square로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α 는 0.05를 기준으로 양측검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은 21세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별로는 불교 24.8%, 기독교 23.6%, 없음이 43.2%였다. 출신고교 소재지로는 대도시가 83.3%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생존여부에서는 양친생존이 93.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5.4%였고, 가정의 경제상태는 '중'으로 응답한 학생이 91.3%였으며, 주거형태는 자택이 85.9%이며, 자취, 하숙, 친척집 등이 14.2%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물음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1%였으며, '보수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37.5%, '개방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6.5%로 나타났다.<표 1>

2.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성지식

성지식의 총 점수는 17점 만점 중 간호여대생이 13.29 ± 1.75 점, 일반여대생은 11.11 ± 2.59 점으로 유의한 차이($p=0.000$)를 나타냈다. 각 영역별로는 생식생리, 피임, 임신, 성병의 4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p=0.000$)를 보여 일반여대생에 비해 간호여대생이 성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항수를 평균화했을 때, 전체 대상자의 각 영역별 성지식 점수는 임신, 생식생리, 성병, 피임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

문항별로는 성병에서 5문항, 생식생리와 임신에서 각각 3문항씩, 그리고 피임 1문항에서 일반여대생보다 간호여대생의 지식 정도가 높았다.<표 2-2>

3.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성태도

성태도 점수는 50점 만점에서 간호여대생 25.64점, 일반여대생 26.65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문항별로는 '결혼 전 원치 않은 임신은 유산을 해도 된다'가 간호여대생 3.28점, 일반여대생 3.49점으로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실수(%)

| 특 성 | 구 분 | 간호여대생 | 일반여대생 | 계 |
|--------------|------------|------------|------------|------------|
| 연령 | 19 세 | 22 (8.3) | 2 (1.5) | 24 (6.0) |
| | 20 세 | 78 (29.3) | 31 (22.6) | 109 (27.0) |
| | 21 세 | 103 (38.7) | 63 (46.0) | 166 (41.2) |
| | 22 세 | 30 (11.3) | 30 (21.9) | 60 (14.9) |
| | 23 세 | 18 (6.8) | 6 (4.4) | 24 (6.0) |
| | 24 세 이상 | 15 (5.6) | 5 (3.6) | 20 (5.0) |
| 종교 | 기독교 | 80 (30.1) | 15 (10.9) | 95 (23.6) |
| | 천주교 | 18 (6.8) | 8 (5.8) | 26 (6.5) |
| | 불교 | 58 (21.8) | 42 (30.7) | 100 (24.8) |
| | 없음 | 106 (39.8) | 68 (49.6) | 174 (43.2) |
| | 기타 | 4 (1.5) | 4 (2.9) | 8 (2.0) |
| 출신고교 소재지 | 대도시 | 219 (82.6) | 116 (84.7) | 335 (83.3) |
| | 중, 소도시 | 32 (12.1) | 19 (13.9) | 51 (12.7) |
| | 농, 어촌 | 14 (5.3) | 2 (1.5) | 16 (4.0) |
| 부모의 생존여부 | 양친 생존 | 246 (92.5) | 132 (96.4) | 378 (93.8) |
| | 편부,편모,기타 | 20 (7.5) | 5 (3.6) | 25 (6.2) |
| 어머니의 학력 | 초졸 이하 | 28 (10.6) | 11 (8.0) | 39 (9.7) |
| | 중졸 | 61 (23.1) | 33 (24.1) | 94 (23.4) |
| | 고졸 | 143 (54.2) | 79 (57.7) | 222 (55.4) |
| | 대졸 이상 | 32 (12.1) | 14 (10.2) | 46 (11.5) |
| 가정의 경제상태 | 상 | 3 (1.1) | 3 (2.2) | 6 (1.5) |
| | 중 | 243 (91.4) | 124 (91.2) | 367 (91.3) |
| | 하 | 20 (7.5) | 9 (6.6) | 29 (7.2) |
| 주거형태 | 주택 | 225 (84.6) | 121 (88.3) | 346 (85.9) |
| | 자취, 하숙 | 31 (11.7) | 12 (8.8) | 43 (10.7) |
| | 친척집,기숙사,기타 | 10 (3.8) | 4 (2.9) | 14 (3.5) |
| 성에 대한 부모의 태도 | 보수 | 94 (35.3) | 57 (41.6) | 151 (37.5) |
| | 보통 | 153 (57.5) | 73 (53.3) | 226 (56.1) |
| | 개방 | 19 (7.1) | 7 (5.1) | 26 (6.5) |

무응답 제외

표 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 영 역 | 문 항 수 | 간호여대생 | 일반여대생 | t | p |
|---------------------|-------|------------|------------|-------|----------|
| 생식생리 (4.20±0.90) | 5 | 4.35±0.75 | 3.91±1.09 | 4.253 | 0.000*** |
| 피임 (0.93±0.72) | 2 | 1.04±0.72 | 0.72±0.67 | 4.385 | 0.000*** |
| 임신 (4.57±0.73) | 5 | 4.76±0.48 | 4.20±0.97 | 6.357 | 0.000*** |
| 성병 (2.85±1.18) | 5 | 3.14±1.07 | 2.28±1.18 | 7.364 | 0.000*** |
| 계 | 17 | 13.29±1.75 | 11.11±2.59 | 8.890 | 0.000*** |

*p< .05 **p< .01 ***p< .001

표 2-2.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문항별 성지식

단위 : 평균±표준편차

| 영역 | 문항 | 간호여대생 | 일반여대생 | t |
|------|---|-----------|-----------|-----------|
| 생식생리 | 1. 자위행위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결혼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 0.78±0.42 | 0.64±0.48 | 2.808** |
| | 2. 남성은 정자가 배출되는 기관과 소변이 배출되는 기관이 같다. | 0.89±0.31 | 0.65±0.48 | 5.441*** |
| | 3. 성충동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 0.87±0.33 | 0.88±0.32 | -0.317 |
| | 4. 난자는 한 달에 한 개씩 여성의 난소에서 생성된다. | 0.86±0.35 | 0.86±0.35 | -0.011 |
| | 5. 몽정은 허약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 0.95±0.22 | 0.88±0.33 | 2.274* |
| 피임 | 6. 복강경 수술은 여성이 하는 피임술이다. | 0.40±0.49 | 0.20±0.40 | 4.315*** |
| | 7. 성교 직후 질 세척이나 심한 운동을 함으로써 임신을 막을 수 있다. | 0.64±0.48 | 0.51±0.50 | 2.463 |
| 임신 | 8. 임신초기 약물복용은 태아기형을 초래할 수 있다. | 0.99±0.11 | 0.98±0.15 | 0.833 |
| | 9. 인공유산은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 | 0.90±0.30 | 0.79±0.41 | 2.885** |
| | 10. 분만 시 아기는 엄마의 요도를 통해서 배출된다. | 0.97±0.18 | 0.68±0.47 | 6.915*** |
| | 11. 임신기간 동안 태아는 난소에서 자란다. | 0.96±0.19 | 0.85±0.36 | 3.503** |
| | 12. 폐경기 이후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 0.94±0.25 | 0.91±0.29 | 1.058 |
| 성병 | 13. 성병의 증세가 저절로 사라지면 완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0.85±0.35 | 0.67±0.47 | 3.9748*** |
| | 14. 성병은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도 전염될 수 있다. | 0.46±0.50 | 0.31±0.46 | 3.116** |
| | 15. 매독은 임신초기에 치료하면 태아에게 해가 없다. | 0.22±0.42 | 0.07±0.26 | 4.390*** |
| | 16.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시 걸리지 않는다. | 0.86±0.34 | 0.74±0.44 | 2.950** |
| | 17. AIDS는 화장실 변기나 모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 0.74±0.44 | 0.50±0.50 | 4.825*** |

*p<.05 **p<.01 ***p<.001

+유의한 차이(p=0.040)를 보였고, '여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에 간호여대생 2.45점, 일반여대생 2.68점으로 유의한 차이(p=0.029)를 보였으며,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도 성교가 가능하다'에서 간호여대생 2.99점, 일반여대생 3.31점으로 유의한 차이(p=0.003)를 보였다.

간호여대생에서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이성교제 시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였고 일반여대생에서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결혼 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였다. 반면, 성별에 관계없이 혼외 성교에 대한 2문항 모두에서 10문항 중 개방적인 태

도 점수의 순위로 각각 9, 10위를 보였으며, 결혼전 성교에 대한 태도는 각각 6, 7순위의 태도점수를 나타냈다.<표 3>

4.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성경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간호여대생 61.7%, 일반여대생 62.3%였고, 키스 경험은 간호여대생 59.9%, 일반여대생 61.8%였으며, 자위행위 경험은 간호여대생 9.5%, 일반여대생 9.2%로 나타났다. 성교 경험은 간호여대생 5.3%, 일반여대생 11.9%였고, 피임 경험은 간호여대생 1.9%, 일반여대생 8.2%로 나타나, 성교 경험(p=0.017)과 피임 경험(p=0.002)에서

표 3. 대상자의 성태도 차이

단위 : 평균±표준편차

| 문항 | 간호여대생 (순위) | 일반여대생 (순위) | t | p |
|-------------------------------------|-------------------|-------------------|--------|---------|
| 1. 이성교제 시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 3.43±0.85 (1) | 3.28±0.90 (2) | 1.707 | 0.089 |
| 2. 결혼 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 | 3.28±0.98 (2) | 3.49±0.96 (1) | -2.061 | 0.040* |
| 3. 결혼 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 | 2.68±1.03 (5) | 2.71±1.07 (5) | -.286 | 0.775 |
| 4. 남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 2.41±0.98 (7) | 2.53±0.97 (7) | -1.124 | 0.262 |
| 5. 여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 2.45±1.00 (6) | 2.68±0.98 (6) | -2.185 | 0.029* |
| 6. 남성들은 혼외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 1.64±0.78 (10) | 1.64±0.75 (10) | -.086 | 0.931 |
| 7. 여성들은 혼외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 1.65±0.79 (9) | 1.70±0.81 (9) | -.600 | 0.549 |
| 8.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도 성교가 가능하다. | 2.99±1.03 (4) | 3.31±1.01 (4) | -3.034 | 0.003** |
| 9. 동성간의 성적 행위도 가능하다. | 1.95±1.00 (8) | 2.07±1.05 (8) | -1.074 | 0.284 |
| 10. 성은 가능하면 즐기는 것이 좋다. | 3.16±0.96 (3) | 3.25±1.02 (3) | -.837 | 0.403 |
| 합 계 | 25.64±5.68 | 26.65±4.79 | -1.887 | 0.060 |

*p<.05 **p<.01 ***p<.001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신 경험은 간호여대생이 1명(0.7%), 일반여대생이 4명(2.9%), 인공유산 경험은 간호여대생이 1명(0.7%), 일반여대생이 3명(2.2%)으로 나타났으나, 한 셀 내의 표본 수가 적어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표 4>

5.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성교육 요구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성교육 요구내용에서는 '생명의 존엄성' 1문항만 차이($\chi^2=5.250$)가 낮으며, 나머지 18문항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간호여대생에서 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내용은 '남녀의 성심리'로 98.9%였으며, 일반여대생에서는 100%로 나타난 것이 '피임'이었다. 전체 응답자에서 요구도가 높은 순으로 5순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에는 '피임', '남녀의 성심리', '임신', '성범죄의 예방', '성병'이

있으며, 요구가 낮았던 순으로 5순위 이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배우자의 선택', '이성교제의 방법', '남녀의 역할', '남녀의 생식기관', '사랑의 의미'로 나타났다.<표 5-1>

기타 성교육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에는 '성의 의미와 가치관 및 인식', '성교 테크닉', '노인의 성', '타 국가의 성 개방정도', '동성애', '미혼모시설', '성교 시 상대방의 배려', '성 주체성을 키우는 방법', '순결과 배우자에 대한 예의', '스킨십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의 95.8%에서 대학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실시형태로는 56.3%에서 특강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성교육 적절 시기는 86.4%에서 대학교 4년 중, 1학년 때가 가장 많았으며, 성교육 실시방식은 71.5%가 남녀혼합방식이 적합하

표 4.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성경험

단위 : 실수(백분율)

| 문항 | | 간호여대생 | 일반여대생 | Total | χ^2 | p |
|------|----|------------|------------|------------|----------|---------|
| 이성교제 | 있다 | 164 (61.7) | 87 (63.5) | 251 (62.3) | 0.132 | 0.717 |
| | 없다 | 102 (38.3) | 50 (36.5) | 152 (37.7) | | |
| 키스경험 | 있다 | 166 (62.9) | 82 (59.9) | 248 (61.8) | 0.350 | 0.554 |
| | 없다 | 98 (37.1) | 55 (40.1) | 153 (38.2) | | |
| 자위행위 | 있다 | 25 (9.5) | 12 (9.2) | 37 (9.4) | 0.006 | 0.939 |
| | 없다 | 239 (90.5) | 118 (90.8) | 357 (90.6) | | |
| 성교경험 | 있다 | 14 (5.3) | 16 (11.9) | 30 (7.5) | 5.672 | 0.017* |
| | 없다 | 251 (94.7) | 118 (88.1) | 369 (92.5) | | |
| 피임경험 | 있다 | 5 (1.9) | 11 (8.2) | 16 (4.0) | 9.241 | 0.002** |
| | 없다 | 260 (98.1) | 123 (91.8) | 383 (96.0) | | |

*p< .05 **p< .01 ***p< .001

표 5-1.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의 성교육 요구

단위 : 실수(%)

| 항목 | 간호여대생 | 일반여대생 | χ^2 | 순위 |
|--------------|------------|-------------|----------|----|
| 1. 남녀의 생식기관 | 204 (77.0) | 103 (75.7) | 0.078 | 16 |
| 2. 월경 | 203 (77.2) | 110 (80.3) | 0.510 | 13 |
| 3. 임신 | 255 (95.9) | 130 (94.9) | 0.201 | 3 |
| 4. 분만 | 219 (83.6) | 120 (88.2) | 1.531 | 12 |
| 5. 남녀의 성심리 | 263 (98.9) | 134 (99.3) | 0.136 | 2 |
| 6. 자위행위 | 241 (90.6) | 115 (85.2) | 2.637 | 11 |
| 7. 성교 | 253 (95.1) | 122 (92.4) | 1.171 | 7 |
| 8. 피임 | 262 (98.5) | 137 (100.0) | 2.081 | 1 |
| 9. 유산 | 251 (95.1) | 128 (94.8) | 0.013 | 6 |
| 10. 성병 | 256 (96.2) | 125 (92.6) | 2.515 | 5 |
| 11. 사랑의 의미 | 208 (78.2) | 102 (76.1) | 0.220 | 15 |
| 12. 이성교제의 방법 | 195 (73.6) | 97 (72.4) | 0.065 | 18 |
| 13. 배우자의 선택 | 185 (70.1) | 97 (72.4) | 0.230 | 19 |
| 14. 결혼의 의미 | 211 (79.6) | 101 (75.4) | 0.943 | 14 |
| 15. 생명의 존엄성 | 247 (92.9) | 114 (85.7) | 5.250* | 10 |
| 16. 남녀의 역할 | 208 (78.5) | 97 (72.9) | 1.528 | 17 |
| 17. 성욕의 처리방법 | 250 (94.0) | 125 (91.9) | 0.617 | 8 |
| 18. 성범죄의 예방 | 253 (95.1) | 130 (95.6) | 0.045 | 4 |
| 19. 성윤리 | 245 (92.1) | 123 (90.4) | 0.322 | 9 |

*p< .05

다고 하였다. 대학에서 가장 적합한 성교육 담당자로는 '간호학과 교수' 23.14%, '성교육전문가' 17.47%, 그 외 간호사, 보건교사, 산부인과 교수, 상담가, 구성에 등으로 나타났다. 성교육과 관련된 기타 요구

사항에서 5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내용은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교육으로 경구피임약, 콘돔사용법 등 피임방법과 성병의 자가진단법 등이 포함되었다.<표 5-2>

표 5-2. 기타 성교육 관련 요구사항

| 내 용 | 빈 도 | 백분율 |
|----------------------------------|-----|--------|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피임방법 등) | 41 | 50.00 |
|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실시 | 12 | 14.63 |
| 시청각교육·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 | 6 | 7.32 |
| 적극적인 교육 | 6 | 7.32 |
|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정기적인 교육 | 5 | 6.10 |
|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낙태와 성병에 대한 인식교육 | 4 | 4.88 |
| 비밀이 보장되는 질의 응답식 강의 | 4 | 4.88 |
| 인간존중, 남녀 모두의 책임강조, 보수적 성향으로 교육필요 | 3 | 3.66 |
| 동성애의 정확한 관점 | 1 | 1.22 |
| 계 | 82 | 100.00 |

(중복응답가능)

IV. 고 찰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학생과 간호학 외의 타 전공학생의 성 지식, 태도, 경험과 요구도를 비교하여 실제 그 차이 여부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 지역에 연구 대상자를 국한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성지식은 총 점수와 각 영역별 점수 모두에서 예상대로 일반여대생보다 간호여대생이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전공학문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

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각 영역별로 볼 때, 응답자 모두에서 임신과 생식생리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임과 성병에 대한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인숙(1994)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식생리에 대한 점수는 높은 반면, 피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혜숙(2002)의 일개 여대생 1, 2학년 1,2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학년, 학과별 모두 생식생리 점수가 높고 피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경우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피임과 성병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간호학과 같은 보건 계열학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식이 높다고 여겨 자칫 간과하기 쉽기에, 관련교과시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성지식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가 0.5815로 낮게 나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등을 통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성태도 점수는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첫째, 이성교제 시 임신의 책임에 대해 남성에게 묻는 태도 점수가 각 1, 2위로 나타난 것이다. 혼전 임신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기에 책임을 남성에게 돌리기보다는 임신과 이로 인한 2차적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준비와 스스로에 대한 성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로는, 전체 문항 중 성별에 관계없이 혼전 성교 경험에 대한 문항이 전체 10 문항 중에서 6, 7위의 점수로 혼외 성교에 대한 점수 9, 10위와 비교할 때 보다 개방적이었으며, 혼전 유산에 대해서는 각 군 모두에서 1, 2위로 개방된 태도 점수를 보인 것이다. 이는 이인숙(1994)의 연구와 이혜숙(2002)의 연구에서 가장 개방적인 태도에 '결혼 전 유산'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피임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과 더불어 '결혼 전 유산'에 대한 개방적인 성태도를 고려할 때,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의 가능성이 증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경우에는 피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인공유산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성경험에 있어서 성교와 피임경험에서 일반 여대생이 간호여대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군간에 차이와 관계없이 대학시절의 성교, 임신의 경험은 혼전 임신중절과 같은 2차 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영주 등(1998)의 연구결과에서 임신 경험을 한 10대 여성의 인공유산 회수는 53.9%가 2회 이상으로 반복적이었으며, 합병증도 22%가 경험했다는 것을 볼 때, 결혼하기 전의 성교로 인한 임신은 인

공중절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결혼 후의 성생활이나 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에서 성교 경험의 시작이 언제인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성교제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대학 생활인만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성행위 이후에 자신을 관리할 능력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으로 간호여대생에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가 일반여대생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에 이와 관련되어 일반 학과의 학생들보다 요구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공교과시간에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성교육은 인간교육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그 기본정신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은 전공과 관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성교육 요구 내용 19 문항 중, 일반여대생에서 1위로 나타난 것이 '피임'이었으며, 간호여대생에서는 '남녀의 성심리'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시에는 특히 피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영휘(1997)의 연구에서 피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피임의 선택'이었듯이 이론보다는 대학생들이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간호여대생에서는 '남녀의 성심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전공학문의 학생들보다는 남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시에는 특히, 상대 성인 남성의 성심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겠다. 그 외 성범죄의 예방, 성병과 같은 요구도가 높은 내용을 요구도가 낮은 내용과 비교해볼 때,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1999)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역효과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개선되어야 할 방안으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고 충분한 교육, 구체적이고 솔직한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순결교육을 바탕으로 한 비실제적이고 피상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이고 파격

적인 방법으로 성교육에 임하여 교육 수혜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영주 등 1998; 김정은 1999).

대학에서의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5.8%가 찬성한 것은 대학교육에서의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교육의 적절한 시기로는 대학교 1학년인 것과 성교육 실시형태로는 특강식과 남녀혼합방식을 원하였다. 대학에서의 성교육 담당자로 적합한 자를 묻는 개방문항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성교육 전문가, 간호사 및 보건교사, 산부인과 교수, 상담가, 구성애 등으로 응답하여 전문가에 의한 성교육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학교에서 성교육은 신입생이었을 때, 전문가에 의한 전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학에서도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성교육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인력은 기존의 인력을 재훈련시키거나 또한 Mellanby 등(1995)의 연구에서, 의사나 의료인들에 의해 특정 실시한 성교육방법들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대학 내 의료인 중에서 성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대학에서는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조화로운 전인적 교육을 토대로 하되, 기존의 보수적이고 구태의연한 내용과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과 일반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비교연구로서, 대학생들의 성교육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부산시내 소재의 4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간호학과 266명, 일반학과 137명의 총 403명으로 하였으며,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2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약 1개월 동안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10.1을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Chi-square를 실시하였다.

성지식 점수에서는 간호여대생이 일반여대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태도 점수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성경험에서는 성교와 피임경험이 간호여대생보다 일반여대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교육요구내용에서는 간호여대생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가 일반여대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공계열에 따라 부족한 내용과 수혜자의 요구에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공과 관계없이 성 지식면에서는 남녀의 생식생리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보다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임방법, 인공유산의 위험성과 성병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성태도와 성행위 측면에서는 대학입학 시기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 및 태도와 성행위에 대한 올바른 관리 능력을 지닐 수 있는 성 교육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에서의 성교육이 일반적인 이론 중심의 일회성을 띠기보다는 1학년 때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면서도 자신들의 성행위에 있어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연숙. 남녀 대학생의 성 태도와 성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남명희.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9; 10(1):239-251.
- 문인옥. 일부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7;14(2): 95-112.
- 문인옥. 고등학생들의 성문화. 한국보건교육학회지 2000;1(2):1-16.
- 박경화. 기혼 남녀의 성태도 유형.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인숙.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혜숙. 일부 여대생의 성 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2;8(1): 131-144.

- 성범죄율 세계 3위. 조선일보 2002;6월 2일자 8면.
- 한경순, 함미영.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0;6(1):115-131.
- 박영주, 구병삼, 홍명호, 김탁, 신재철, 이찬, 문준, 오민정. 한국 10대 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 경험 실태. 대한간호학회지 1998;28(3):573-582.
- 신혜숙. 인공유산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 유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8;4(1):78-92.
- 김현경, 최수정,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성지식·성태도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내용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9;16(1):167-185.
- 이영휘,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97;27(1):26-35.
- Mellanby, A. R., Phelps, F. A., Crichton, N. J., Tripp, J. H. School sex education : an experimental programme with educational and medical benefit. BMJ 1995; 311:414-417.